양캠퍼스 총학생회장 인터뷰

서 울

한철수군
〈신방·4〉

학년학생회 건설 통한 조직강화 주력

등록금투쟁·총장선출 오류 제대로 평가할터

정권교체기인 93년 민주대연합 건설 박차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제2기 학생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 위원장에 선출된 한철수(신방·4)본교총학생회장.

개강후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한철수군을 만나 전대협 학추위의 조국통일투쟁, 총학생회 사업평가 및 전망을 들어본다.

−전대협 학추위장과 서울지역 동부지구총학생회 의장을 맡으면서 느낀 소감과 이후 전망은.

△전대협의 기본적인 구국통일투쟁은 현 사회를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축출, 즉 반미자주화투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도 불가침선언채택 평화협정체결, 8·15범민족대회 적극 참가를 통해 통일운동의 전민중적 확산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뿐만아니라 경희의 1만학우가 기뻐해야 할 점은 전대협 학추위장을 배출할 만큼 본교의 운동역량이 발전했다는 것이지요.

−제23대 총학생회가 구성된 후 첫사업인 등록금투쟁의 평가는.

△사실 이번 등록금투쟁은 많은 오류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등록금투쟁의 본질이 학생참여·재단공개·교육재정확보라고 많은 학생이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자체가 인상률싸움에 집착했다는 것은 올해 등록금투쟁의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사업에서 이러한 사업작풍은 철저히 평가되어야겠지요.

−등록금투쟁이 학원자주화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이나 총장선출도 학원자주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은 한 학교의 상징이자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자는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선출해야겠지요.

하나 총장선출투쟁의 경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과 이 문제가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남한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투쟁에 많은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한계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겠죠. 총학생회도 대학발전위원회 구성등 대처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요즈음에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농민운동등 운동이 양적·질적으로 많은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흥해서인지 학내에도 여러 정치적입장을 가진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총학생회는 어떻게 수렴할지…

△학내에서 총학생회 사업과 정치투쟁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세력들은 총학생회를 정치투쟁기구로만 여기지요. 총학생회는 정치투쟁기구가 아닌 대중기구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총학생회의 공식입장은 회체계내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자는 것이지요. 그들의 의견표출 방법중에 대표적인 방법인대자보선전에 대해 저는 중앙대자보판은 대중기구인 총학이 맡아야 한다고 보며 선전작업을 하더라도 총학생회와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모든 세력들은 합법적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외사업을 주로 하다보니 식사와 잠자리가 불규칙해 생활이 불안정하다며 고충을 털어놓는 한철수총학생회장은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기태 記者〉

수 원

이재표군
〈중문·4〉

전학대회는 학생회 발전 요구

지역대중과 연대강화 계획

"학우 주인되는 학생회 만들것"

"선거당선이후 학우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여러번 인사는 드렸지만 지난 출범식 이후 6백여간부전체가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림으로서 총학생회는 본격적으로 출범 하게 되었읍니다. 간부 6백여명이 모인것이 총학생회이고 그 구성원은 경희 8천학우 모두입니다. 대중을 주인으로 세우는 학생회를 만듦으로서 학우들과 함께만드는 학생회를 건설하겠습니다"며 인사말과 올해의 사업에대한 전망을 밝히는 이재표(중문·4) 수원캠퍼스 제23대 총학생회장을 만나 보았다.

이재표 총학생회장은 올해사업의 최우선과제를 묻는 질문에 "올해 사업의 최우선과제는 무엇보다도 자주적 학생회의 건설로 삼고 있습니다. 수원캠퍼스는 타 대학과 달리 학생회의 역사가 짧아 학생회 간부들 까지도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올바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단순한 정치투쟁체쯤으로 인식되기 일수였지요. 23대학생회는 이를 해소키위해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뿐 아니라 사업 수행 역시 철저히 학우대중에 기반하는 학생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라며 올해의 사업 기조를 밝혔다. 한편 이를위해 등록금투쟁평가를 기반으로 학자조직을 단대·과 단위까지 건설하므로써 학생대중을 당당하게 학원의 주인으로 세울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진행 하기위해 "먼저 총학생회 운영위가 제대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위가 중앙단위뿐 아닌 단과대, 과단위까지 건설되도록 하여 제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과단위 운영위의 건설에 들어갔으나 과학생회의 필수조직인 분임조가 신입생 O·T나 등록금투쟁을 통해 이미 구성 되어 있으므로 그리 어렵지 않을것으로 봅니다"며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하는 이재표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선거공약중 최우선과제였던 전학대회 건설에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학대회는 학생회 발전의 요구에따른것으로 자주적 학생회의 꽃이라 할수있죠 전학대회의 건설을위해 단대, 과 학생회등을 강화하는 한편 방중 간부학교등을 통해 이미 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업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편 단대, 운영위와 중앙운영위, 중요 사안이 있을때마다 긴밀하게접촉, 이를 전학대회로 발전시켜 나갈것으로 밝혔다.

이번에 용인성남지구 (이하·용성총련)부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요 라며. 그의의를 묻자 "이전의 용성총련에는 부의장이라는 제도가 없었읍니다. 대학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져야함에도 용성총련의 사업이 성남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우리학교가 지리적으로 위치해있는 용인신갈 지역의 대중들과 괴리되었던게 사실이었어요, 이번에 신설된 부의장직을 제가 맡음으로 이런점들을 해소해 나가볼까 합니다. 또한 이를위해 우선 학교간연대를 강화하고 미약한단계이기는 하나 용인지역 민주단체 연석회의 건준위를 구성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 대한 바램을 묻자 이재표 총학생회장은 "올해의 총학생회는 학우들이 있는 한 어떠한 난관에도 실망, 좌절하지 않을것입니다. 총학생회가 학생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제가 경희 8천학우 모두를 만날수는 없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대중의 학생회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이상으로 저희 학생회 역시 학우대중들을 믿고 있구요. 이를 통해 저희는 좀더 힘있는 사업을 펼쳐 나갈것입니다"라며, 학생회에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당부하며 말을 맺었다.

〈엄홍준 記者〉

고황골 주차전쟁

단속이나 정책앞서 운전자의식 선결돼야

주차빌딩등 공간확보만이 해결점

Ⅰ. 시작을 위한 제언

80년대 초반 3저현상에 따른 호황은 자동차산업의 무분별한 팽창을 초래했으나, 그 이후 수출이 막히자 관련 대기업들은 내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국내 교통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일관교육체제에 따라 한 캠퍼스 안에 유치원부터 대학원, 그리고 의료원까지 들어서 있는 본교 서울캠퍼스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졸업식등 행사때나 볼 수 있었던 학내 차량 과잉화 현상이 현재는 상시화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내 주차시설 현황과 학교당국, 그리고 총학생회의 대처방안과 해결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차량 과잉화 현상

현재 서울캠퍼스는 등용문에서 본관에 이르는 직선도로와 경사진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내 주차 가능대수는 3백56대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교직원 및 병설학교 임직원 등의 차량보유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시설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심지어 학생들까지 자가용 등교가 성행해지자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에서 교내 출입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내 차량통제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복위에서 발급하던 차량 출입증 발급업무를 총무과로 이관, 총무과에서 지난 2월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새 차량출입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총무과는 인복위와 함께 신규 차량스티커가 통용되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홍보기간을 거쳐 8일부터 강력한 교내 통제에 들어가게 된다. 인복위 복지위원 금부종(경제·3)군은 "작년 4월 영남대 교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사상자를 냄으로써 교내 차량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으며, 지난주 성균관대에서 발생한 교수 구타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통제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관할경찰서와 연계해 견인을 하거나, 번호판을 둘중 하나를 회수해 과태료를 물려 주차장 확보 재원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자세한 통제 방침에 대해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본교 캠퍼스의 경우 유치원, 국민학교, 남·여중고등학교를 비롯 2개 전문대학을 수용하고 있으며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의료원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치과병원이 올 하반기 완공예정으로 있어 캠퍼스 주변 주차시설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차량통제나 계몽활동은 주차상황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결코 되지 못한다.

총무과 이회갑선생은 "결국 교내 주차상황의 궁극적인 해결은 주차시설의 확충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민간업자를 유치 대운동장 지하에 주차시설을 해 놓고 일정기간 주차료를 받는 방법등 여러가지 생각해 왔으나 현 상황에서 재정상, 행정상 어려움이 많아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차량통제 이외의 방안은 아직 모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인복위도 지난달 22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기초로 복지회관 계획을 추진중임을 밝혔으나 아직 구상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복위 위원장 이영빈(신방·4)군은 "복지회관이 건립될 경우 지하 1·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교내주차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학교측과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Ⅲ. 의료원 유료 주차장

서울캠퍼스 교통문제를 다룸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곳이 의료원이다. 의료원은 등용문 앞에 위치해 있을 뿐아니라 환자 및 내원객이 많아 학교앞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원측은 서울대병원, 이대병원, 고려병원 등에서 이미 실시해 효과를 보고있는 주차장 유료화를 관계당국과 협의가 끝나는 이달 중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내원객 주차장 요금은 환자의 경우 3시간 동안만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일반 내원객에게 30분당 1천원의 주차료를 부과해 주차장 회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여기에서 생기는 금액은 주차시설 확충에 재투자되는 재원으로 적립되게 된다.

Ⅳ. 해결방안 모색

학교당국이나 인복위 등의 여러 정책이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점은 차를 운행하는 자가운전자들의 의식구조 문제이다. 교내 환경과 학풍조성 특히 학생의 경우 다른학생과의 동질성 의식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세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측의 긴 안목을 가진 정책이 아쉽다 하겠다. 동국대의 경우 올 하반기 완공목표로 주차빌딩을 건설,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복지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라 한다. 따라서 서울캠퍼스의 경우 주차시설의 확충만이 그 해결점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대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있어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학교당국 학생대표 그리고 의료원 등이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갖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방현기 記者〉

校是塔

도난당한 기물과 아쉬운 주인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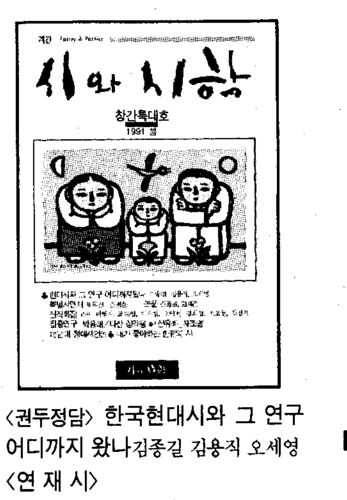
▼최근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휴게실과 열람실의 책·걸상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윗층 동아리방에서 찾을 수는 있었지만 학생회관 뿐만 아니라 단과대학관의 강의실과 열람실에서 책·걸상들이 많이 분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 의해 강의실 책상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어대의 한 학생은 강의시간에 책상을 가져오려고 옆 강의실을 찾아다니느라 소동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단순한 분실 사건만이 아니라 캠퍼스 안에 있는 보안등의 깨진 모습들도 눈에 뜨인다. 즉 이것은 학내 시설물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극명한 한가지 예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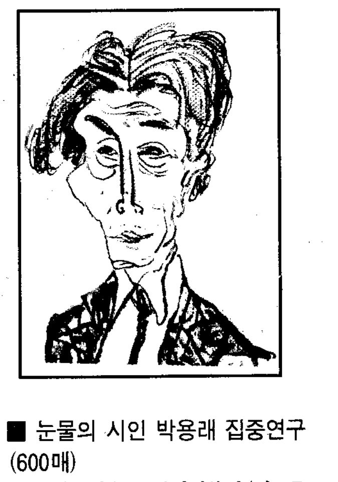
▼현재 교내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관리는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와 따라 새 기자재를 설치하고 기존의 설비를 보수하며 아울러 전반적인 시설 관리를 맡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쌓이는데 비해 관리과의 현재 직원수로는 학내 구석구석까지 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는듯 하다. 관리과 나름대로 지난 85년 전체물품조사를 통해 기자재 수를 확인했고 현재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없어지는 물건이 많아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과의 한 직원은 "분실된 대다수 물품들은 동아리방이나 개인의 자취방으로 가져가는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계속적인 분실사건은 필연적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힌다.

▼분실사건의 경우 학칙상으로는 처벌할수있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칙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는 학생들 양심의 문제에 속한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애착심과 주인된 의식이 있다면 이와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좋은 교육여건조성의 규제를 학교측이 감당해야 한다면, 조성된 시설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다. 학생 스스로의 노력이야말로 훌륭한 교육여건조성을 위한 정당한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를 읽어야할 시간입니다.

전쟁의 포연 속에서 피어난 한송이 시의 들꽃「시와 시학」,
이 시대의 맑은 정신과 향기로운 서정의 샘물을 길어올리겠습니다.





〈권두정담〉 한국현대시와 그 연구 어디까지 왔나 김종길 김용직 오세영
〈연 재 시〉
박두진 〈수석영가〉
조병화 〈시로 쓰는 자서전〉
고은/허영자/조태일/이가림/오탁번
정희성/조오현/김진경의 신작특집
〈논문〉 근대문학의 상한선과 하한선 새롭게 설정해야
중·고교 교과서 수록시평설(연재)
■ 다산 정약용 집중연구(400매)
−사회성/장르체계와 서정성/문학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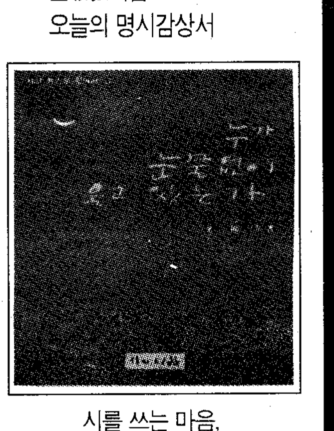
■ 눈물의 시인 박용래 집중연구 (600매)
생애/서정성/구조주의적분석/기호론적분석/운율론적분석/사회성/연구사/유작발굴
동서문학의 정신세계(연재:조동일)
「산유화」 재조명·대조적해석 주목돼
−서정범, 샤머니즘/정현기, 기독교적 존재론
오늘의 지성들 어떤 시 애송하나?
70년대 정예시인선
이시영, 조정권, 송수권, 감태준외

*「새로운 시인상, 평론가상」제정..
*「중년신인 작품발굴공모」. 창간호 절찬발매중
* 정기구독가입회원께는 시감상서「누가 눈물없이 울고있는가」를 기념으로 증정합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14−10
한신 City 21 오피스텔 913호
신국판 440면 값 5,000원
계간시지 시와 시학
Tel 594−0928
Fax 594−0929

누가
눈물없이
울고 있는가

金載弘지음
오늘의 명시감상서



시를 쓰는 마음,
시를 읽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대지와 풀잎,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런지요.

□ 마흔 분이 쓴 오늘의 명사들을 가려뽑아 수록하고, 그에 대해 아름다운 문장으로 깊이있게 평설을 전개하면서 김영태시인의 예술적인 컷을 곁들임으로써 시의 정수와 향기를 맛보게 하는 격조높은 명저
□ 이제 우리시에 대한 평설, 감상비평도 재미있고 차원높은 창작예술로 이끌어 올려져야할 시대가 열렸습니다. 240면 값3,500원

아름다운 책 / 향기나는 책
시와 시학

예비군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

"창설 제23주년 예비군의날" 기념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금번 행사는 예비군 대원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진행코자 하오니 많은 대원들의 참여로 본 행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91. 4. 6(토) 10:00−
○장　소:본관2층 대회의실
○참석대상:소대장이상 간부(필히 참석의무) 일반대원은 자발적인 참석권장
○복　장:예비군복
*행사소요시간은 30분 내외이며 참가자는 30분전까지 입장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장

어학강좌안내

본교 언어교육연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어학강좌를 실시합니다.

1. 개설과목 및 모집인원
가. 영어회화(초급):아침반, 저녁반 각 15명
나. 영어회화(중급):아침반, 저녁반 각 15명
다. 일본어 특강(초급):아침반 20명
라. 중국어 특강(초급):아침반 20명
마. 러시아어 특강(초급):20명
2. 강의기간 및 시간
가. 기간:1990. 5. 6−6. 28(8주)
나. 시간:아침반(월, 수, 금)07:30−09:00(90분)
저녁반(월, 수, 금)18:00−19:30(90분)
3. 수강료:과목당:100,000원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1991. 4. 30 오후 5시까지 선착순 마감.
나. 접수처:시청교육원내 언어교육연구원 사무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어교육연구원(전화 961−0080, 0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언어교육연구원

동아시아 연구회 회원모집 안내

1. 연구회 목적
동아시아연구회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시대'를 창도하고 준비하는 순수학술연구단체로서 학문적 연구와 인적교류의 확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더 나아가 지역통합을 겨냥하여 주요 동북아 구성국가를 중심으로한 지역연구(Area Study)를 행하며,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각 국가를 직접 현지답사하여 실증적 경험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통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회원자격
정회원:경희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자 및 학위취득자
준회원:본회와 뜻을 같이하는 재학생

3. 회원특전:방학기간중 연구대상지역 답사시 최우선적 자격부여

4. 연구회실적:1990.2월 대만답사
1990.7월 일본답사
1991.8월 중국답사 예정

5. 연락처:961−0216(함선미 조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연구회